

박근혜위원장 호남인재 적극 발굴한다더니...

## 시늉만 낸 새누리당

광주·전남 19곳중 겨우 10곳만 공천

최근 마무리된 새누리당의 4·11 총선 지역구 공천에서 광주·전남지역은 19곳 중 10곳에 후보를 내는데 그쳐 절반을 겨우 넘겼다. 이는 그동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혀온 '호남 인재 발굴론'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20일에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자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과거처럼 '무늬만 호남'인 인사를 내세울지, 아니면 실질적인 호남 인사를 선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호남 공천율 '56.7%'=새누리당의 전국 지역구 공천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남 30곳 중 공천 후보를 낸 지역구는 17곳(56.7%)뿐이었다. 광주는 8곳 중 6곳, 전남은 11곳 중 3곳, 전북은 11곳 중 4곳이 무공천 지역구로 각각 남아있다.

지역별 공천 신청자는 ▲광주 5명

(5개 지역구) ▲전남 15명(10개 지역구) ▲전북 16명(9개 지역구) 등 모두 3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호남 30곳 중 24곳에서 공천 신청을 한 셈이다. 하지만, 공천이 이뤄진 지역구는 17곳뿐이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18대 총선 당시 광주(8곳)·전남(12곳)·전북(11곳) 등 전 지역구에서 공천 후보를 냈었다. 당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적지나 다름없는 호남지역에서 승산 없는 대결을 사실상 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여당의 호남 출대는 박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에도 배치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호남 출대는 전 부당만부당한 말"이라며 "호남에서 인재들을 적극 발굴해 밑에 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비례도 '무늬만 호남?'=새누리당은 20일 비례대표 후보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호남 인사가 과연 몇 명이나 안정권에 들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전남출신 비례대표 신청자는 모두 20명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9일 지방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역에서 헌신해오고 신망을 얻는 분을 비례대표에 배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지역 신청자들은 박 위원장의 약속을 내심 반기면서도 예전처럼 '무늬만 호남'인 인사가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눈치다.

새누리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무공천지역으로 놔두겠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느냐"라며 "최근 당이 지역에서 일한 인재를 비례대표로 뽑겠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공심위에서 잘 판단해 선택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세시봉친구들 콘서트 두번째 이야기

4월 20일(금) 오후 8시  
4월 21일(토)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광주일보사·KBC 광주방송 주관: KBC 플러스  
예매: 쇼티켓·인터파크 문의: 062-220-0541, 1544-0412



## 민주 광주 서구갑 공천 갈팡질팡

장하진 등록 포기 경선 무산...선거인단 오류 복구를 재심은 기각

민주통합당의 광주 서구 갑 지역구 후보 공천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역 민심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광주 북을 지역구의 선거인단 오류 문제는 재검표 결과, 서구 동천동 주민들의 경선 참여가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재심이 기각됐다.

19일 민주통합당 선거위는 이날 오

전 9시까지 광주 서구 갑 후보 등록을 받았으나 박해자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던 장하진 예비후보가 등록을 포기, 경선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박해자 예비후보의 서구 갑 지역구 단독 후보 선출이 가시화됐지만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송갑석 예비후보를 경선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격론이 벌어졌고 최

종 결론이 보류됐다.

당내에서는 광주 서구 갑 지역구의 단독 후보 선출 및 경선 실시 여부는 19일 밤이나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 재심 위원회는 장하진 예비후보의 전라공천 주장을 인용, 최고위에 보고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처럼 서구 갑 후보 공천이 일주일 이상 늦어지면서 민주통합당을 바라보는 지역 민심은 갈수록 냉랭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주류 측에서 지역 민심을 무시하고 장하진 예비후보를 억지로 공천하려다 파행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한편, 선거인단 오류 문제로 파문이 일었던 광주 북구 을은 재검표 결과, 서구 동천동 선거인단이 최종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경선 1위인 임내현 후보를 최종 공천자로 결정했다.

문제를 제기했던 최경현 예비후보는 이날 "경선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심이 인용된 해남·완도·진도는 중앙당 차원의 실사 보고를 받은 뒤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20일에는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57곳, 통합진보 11곳 승리

야권연대 경선·이정희·심상정·노회찬 확정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19일 69개 선거구에 대한 야권연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4·11 총선을 여권과 '일대일' 구도로 만들었다. 전남 지리산·일대일 구도로 만들었다. 전남 지리산·일대일 구도로 만들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이정희 대표가 관악구청장 출신의 현역 의원이던 민주당 김희철 의원을, 도봉구갑에서는 고(故) 김근태 고문의 부인 이재근 후보가 참여정부 대변인 출신의 통합진보당 이백만 후보를 각각 누르고 후보로 확정됐다.

은평구에서는 통합진보당의 천준분을 하루 앞둔 19일 광주 북구청 공무원직과 직원들이 광주농업기술센터 시설하우스에서 도심 가로화단에 심을 비둘라와 패랭이 등 봄꽃을 옮기고 있다.

했고, 통합진보당 심상정(경기 고양 덕양갑) 후보와 노회찬(노원구병) 대변인도 각각 승리했다.

야권 대권주자인 민주당 정세균(서울 종로구), 정동영(서울 강남구 을) 의원도 모두 승리했고, 민주통합당 대표 출신의 이용선(서울 양천구 을) 후보도 후보로 확정됐다.

그러나 진보신당 대표를 지낸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은 울산 남구갑에서 민주당 심규명 의원에 패했다.

또 민주당의 전략공천 후보인 경기 이천시 김도식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통합진보당 임태준 후보에게, 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의 조민행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이병은 후보에게 각각 패했다. /박지경기자 jpkp@



오늘 춘분...봄단장 나서는 봄꽃

춘분을 하루 앞둔 19일 광주 북구청 공무원직과 직원들이 광주농업기술센터 시설하우스에서 도심 가로화단에 심을 비둘라와 패랭이 등 봄꽃을 옮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 하게 되었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학력 및 경력○

- 광주실례시모고등학교 졸업(25회)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86학번)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1997년)
-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2000년)
- 서울지방법원 형사지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 광주고등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

## 변호사 정문수 올림

- 업무개시: 2012년 3월 5일
- 업무주소: 전남 순천시 왕지동 850-8번지 (광주은행건물 302호)
- 대표전화: 061)746-4100 팩스: 061)746-4300
- 개업소: 2012년 3월 23일(금) 16:00

## 예술작품으로 빛나는 이태리의 정통 명품 가구 광주에서 만나십시오!



뮤제오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나십시오!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은 이탈리아 명품가구-

뮤제오에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개월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장인들의 정통수공예 기법으로 만든 가구로 작은 소품 하나하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긴듯한 뮤제오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트렌드로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기쁨있는 실내를 연출하십시오!

## TV 인기드라마 협찬업체

SBS "대물" / KBS2 "꽃보다 남자" / KBS "아가씨를 부탁해" 등 다수



이태리 명품브랜드 취급사

점포 / 프로바지 / 란자니 / 메데아 / 실바노 / 데포카 / 체피 / 라콘테시나 / 오리지날레

"JUMBO"와 독점 판매 계약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80-3(메리엇 웨딩홀 건너편) Tel. 062. 369. 9100 Fax. 062. 369. 9101